

2024

추석 가정예배

예배초청

인도자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 송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다 같이

1.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있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신명기 1:29-33

인도자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니라

설 교

믿음의 눈

인도자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다 같이

1.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축복기도

인도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 사람의 장대함과 성읍 또한 난공불락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급속도로 퍼져 나갔고 주님을 원망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상대를 커 보이게 하고 자신은 작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진 순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 상황을 피해 돌아서거나 얼어붙거나 타자를 원망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편이지만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눈을 바로 뜨고 응시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향해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말은 그냥 해보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의 일화가 소개됩니다.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아람 군대를 본 엘리사의 사환(시종)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태연하기만 합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히 11:1, 메시지 성경)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작은 씨앗에서 숲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 1:30)

주님은 백성의 광명을 위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싸움을 마무리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동안에도 백성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셨습니다.(신 1:33) 이것이 우리를 극진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앞에 맞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